

수난이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1-10-28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 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나)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다)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부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오니, 첫째 걸어 댕기기가 불편해서 똑 죽겠심더."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 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댕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라면 안 되겠나? 그제?"

"예."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이다.
② 부자(父子)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서술자의 감정이 개입된 주관적인 서술이다.
④ 두 인물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있다.
⑤ 한가롭고 여유로운 도시의 정감 어린 풍경이다.

2. 글 (나)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다.
②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이 변화하였다.
③ 상대를 대하는 인물의 태도가 달라졌다.
④ 인물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다.

3. 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① 만도는 진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② 만도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③ 만도는 진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④ 진수는 만도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⑤ 진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4. 위 소설을 광고하려고 할 때, 그 문구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언제나 그립고 정감이 넘치는 부자 이야기
② 우리 전통 먹을거리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한국
③ 누구나 한 번 쯤 경험해 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④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는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⑤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 속에서 수난을 겪는 순박한 사람들의 이야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 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디어 낼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 갔고, 고된 일도 날이 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 그냥 저냥 배겨 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나)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닦아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산허리에 굴을 파들어 가는 작업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다)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 댔다. 앵앵앵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 굴 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한 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더러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때로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면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들이닥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질겁을 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낸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만도는 힘든 섬 생활에 차츰 적응해 나갔다.
② 힘든 노동으로 인해 만도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③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었다.
④ 만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섬 생활을 힘들어했다.
⑤ 징용 온 사람들은 모두 공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6. '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① 조선과 기후가 다른 곳이다.
② 연합군의 공격에도 안전하다.
③ 일본이 전쟁에 사용할 비행장을 세웠다.
④ 많은 조선인들이 노동을 해야 했던 곳이다.
⑤ 잠자리만큼 큰 모기떼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7. 만도가 한쪽 팔을 잃은 궁극적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부주의하고 덜렁대는 만도의 성격
② 고된 노동으로 흐려진 만도의 집중력
③ 만도를 비롯한 조선인을 전쟁지로 강제 징용한 일본
④ 민간인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폭격한 비행기 조종사
⑤ 자기 몸이 편하기 위해 공습경보를 기다린 다른 징용자들

8. (나)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속담은? (정답 2개)

① 누워서 떡먹기
② 제 논에 물대기
③ 산 넘어 산이다.
④ 빛 좋은 개살구
⑤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였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잰걸음 쳐 나가다가 개천 둑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한여름 장마철에는 들어설라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마는, 요즘엔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가 시려온다.

(나) 만도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의춤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찌익 갈기는 것이다. 거울 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우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 쳐 놓고 한잔 쭈욱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기 떼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 던지고, 그는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다리를 퍽 조심했다.

(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 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둑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앞에 드러내 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선뜩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께를 한 손으로 꽉 움쳐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9. 위 글에 나타난 만도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소탈하고 낙천적이다. ② 단순하고 몰상식하다.
③ 차분하고 지성적이다. ④ 겁이 많고 소극적이다.
⑤ 세심하고 다정다감하다.

10. (가)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서술한 효과로 알맞은 것은?

① 향토적 정감이 느껴진다.
②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③ 만도의 내적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④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⑤ 희극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순박한 성격을 드러낸다.

1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젖은 옷차림으로 다녀야 하므로
②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③ 불구가 된 몸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어야 하므로
④ 누구나 쉽게 건너는 외나무다리에서 바로 떨어졌으므로
⑤ 술을 먹고 실수한 것이 알려지면 놀림을 당할 것이므로

12. 위 글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길이 나온다. 도로변에 먼지를 부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 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 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느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절로 쑥 내려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 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리기로 하였다.

신작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 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의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 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깻죽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13. 위 글에서 Ⓐ와 같은 호칭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친근감의 표현이다.
② 동정심의 표현이다.
③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다.
④ 상대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⑤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이다.

14.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소화가 잘 된다.
② 언짢은 마음이 풀린다.
③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된다.
④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다.
⑤ 거북하던 쓰린 속이 가라앉는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다.
② ㉡ : 만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공간이다.
③ ㉢ : 들을 이룬 넓은 벌판이라는 뜻이다.
④ ㉣ : 큰 것과 작은 것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⑤ ㉤ : 만도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다.

16. 위 글에서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 드러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나)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코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마, 아무데서나 묵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 주소."

"야"

"곱빼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소, 잉?"

(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라) "아부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마)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17. 위 글에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거두고 있는 효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① 구성을 긴밀하게 한다.
② 사건의 현장감을 살린다.
③ 향토색을 두드러지게 한다.
④ 인물들의 순박한 성품을 나타낸다.
⑤ 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u>않은</u> 것은?

① Ⓐ : 인물의 괴로운 심리를 표현하였다.
② Ⓑ : 만도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 : 아들의 처한 현실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④ Ⓓ : 아들이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⑤ Ⓔ : 만도와 아들, 즉 부자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19. 글쓴이가 위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대 간의 갈등 극복
②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촉구
③ 민족의 수난과 그 극복 의지
④ 민족 분단의 해결 방안 제시
⑤ 전쟁의 비극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20. (나) 단락에서 만도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찾아 처음과 끝 어절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깻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나) '삼대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야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맷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맷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처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딴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런 놈이 견뎌 냈을 턱이 없고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다.

(다)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인데…….'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면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21. 글 (나)에서 드러나는 만도의 성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② 아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③ 매사에 쓸데없는 잔걱정이 많다.
④ 자신의 처지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
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22.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u>않은</u> 것은?

① 만도는 진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② 진수와 만나게 된 만도는 반가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③ 만도는 진수를 만나러 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였다.
④ 만도는 진수가 자신처럼 장애를 가지게 될까 봐 걱정하였다.
⑤ 만도는 진수가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3. 위 글의 제목은 '수난 이대'이다.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전쟁 다음 세대에까지 수난을 주는 전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다른 사람의 수난에 대한 진수와 만도 부자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③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 부자의 수난을 담고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수난을 안겨 주는 진수와 만도 부자의 악행을 제시하였다.
⑤ 앞으로 다가올 수난에 미리 준비하는 진수와 만도 부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은?

<보기>

문학은 현실의 모습을 작품 안에 담아낸다. 그러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을 사회와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만도가 진수에게 하는 말을 통해 만도의 긍정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주막에 도착하기 전과 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였다.
③ 만도의 현실 대응 방법을 통해 독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④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진수는 6·25전쟁 때의 수많은 상이군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⑤ 수난을 당한 부자를 그려 내기 위해 작가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를 창조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해설]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서술로 만도와 진수 부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부자가 겪는 비극을 제시하고 있다.

2) [정답] ③
[해설] (가)에서는 진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가 버렸던 만도가 (나)에서는 진수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3) [정답] ④
[해설] 글 (다)에서 진수는 만도가 내놓은 해결 방안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답] ⑤
[해설] 위 소설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휘말려 수난을 겪는 두 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 주고 있다.

5) [정답] ①
[해설] 위 글에서 만도는 처음에 약간의 설사를 하였으나 점차 음식도 입에 맞고 일도 익숙해져 갔다.

6) [정답] ②
[해설] 공습과 관련하여 만도가 한쪽 팔을 잃은 곳이므로 연합군의 공격에 안전한 곳이라 보기 어렵다.

7) [정답] ③
[해설] 만도가 한쪽 팔을 잃은 것은 어느 개인의 탓이 아니라 당대의 시대, 사회적 상황과 관련 있다.

8) [정답] ③, ⑤
[해설] 일제 시대의 가혹한 강제 노동의 모습과 관련된 속담을 찾도록 한다. ①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정답] ①
[해설] 만도는 불구의 몸 때문에 생긴 아픈 기억도 웃음으로 넘겨 버리는 털털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그의 이런 낙천적인 성격은 그가 앞으로 닥칠 어떤 비극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10) [정답] ②
[해설] 만도가 길을 가는 과정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함으로써 시간이 빠르게 전개되는 느낌을 주며, 아들을 만나러 가는 만도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11) [정답] ③
[해설] 만도는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진 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물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했고 그러려면 한쪽 팔이 없는 불구의 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만도는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

12) [정답] 언젠가
[해설] (다) 단락에서는 회상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언젠가'는 만도가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건너게 된 과거의 기억이 시작된 부분이다.

13) [정답] ①
[해설] '문둥이'는 원래 나병 환자를 뜻하는 말로, 경상도 지방에서 반가운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이다. 이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4) [정답] ②
[해설]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는 언짢았던 마음이 풀린다는 뜻으로 주막의 역할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③
[해설] '들머리'는 위 글에서 '입구, 들어가는 맨 첫 머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6) [정답] 그러나, 딱했다.
[해설] 만도의 이런 처지에 대해 서술자는 '참 딱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17) [정답] ①
[해설]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구성이 긴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위 글에서는 사투리를 통해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경상도 지방임을 알 수 있다.

18) [정답] ②
[해설] 만도의 외양 묘사를 통해 만도의 평소 투박하고 소탈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19) [정답] ③
[해설] 위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 외나무다리를 부자가 함께 건너는 장면은 화합과 협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20) [정답] 곱빼기로, 잉?
[해설] (나) 단락에서는 만도가 속이 풀리면서 진수를 위해 국수를 시킨다. 이때 더 많이 주려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21) [정답] ①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

[해설] 글 (나)에서 만도는 병원에서 돌아온다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22) [정답] ②
[해설]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의 모습을 본 충격과 놀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23) [정답] ③
[해설] '수난 이대'는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아버지와 6.25 전쟁 시대를 살고 있는 아들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된 수난을 다룬 작품이다. 위 부분에는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게 된 아들을 만난 아버지 만도의 충격이 제시되어 있다.

24) [정답] ④
[해설] 위 소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기의 비극, 문제, 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36-2 대유빌딩 6층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ECN-0102-2010-001-000962389